

정약용의 평화사상

황병기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국문요약

이 논문은 평화(Peace)라는 단일 주제를 가지고 정약용의 사상을 재구성한 논문이다. 정약용의 언설 속에서 평화의 개념을 규정한다는 목표는 애초 어려운 일이며, 본 논문의 목적도 아니다. 정약용이 살았던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의 조선사회는 평화학이 출발하여 정립되기 시작한 근대 서구의 다양한 국가들이 각축을 벌이던 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당시 조선의 관점에서 정약용만큼 사상적으로 서구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드물고, 종교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동서사상의 융합을 지향한 철학자는 없었기 때문에 대단히 선진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국가들 사이의 평화를 논할 정도로 조선이라는 국가의 주변 상황이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었다.

정약용이 조선이라는 국가를 재조(再造)하고 수호하기 위해 행했던 개혁 조치들과 주장들은 기본적으로는 사대교린의 구도 아래 대국과 소국의 틈바구니에서 조선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방책이었다. 18~19세기의 조선이 자존을 지키며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제도를 개혁하고자 했던 정약용의 헌신과 노력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시사한다.

칸트(I. Kant)가 꿈꾼 지구적 차원의 완전한 영구적 평화, 그리고 갈통(J. Galtung)이 규정한 모든 폭력이 없는 적극적인 평화는 순수한 관념의 소산일 뿐이지만, 대한민국은 이 시점에서 현실적인 평화를 만들어가야만 한다. 가깝게는 남북의 평화가 절실하고, 좀 더 범위를 확장한다면 동아시아의 평화를 기억해야 한다.

정약용의 평화사상에서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고구려가 험지에서는 지속적인 투쟁과 갈등 속에서 스스로 강인해지면서 나라를 보존할 수 있었고, 풍요로운 남쪽으로 내려와 안락한 평화를 추구하다가 멸망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오늘 남한의 현실은 정약용이 말한 험지(險地) 그 자체이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거칠고 험한 국제적 환경을 평화의 유지와 수호를 위한 강인한 정신자세로 직시하면서 대응해 나간다면 능히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약용이 백년 뒤의 미래전쟁에 대비하여 수원 화성을 그처럼 견고하게 설계하였듯이 미래의 평화는 대비하는 자만이 얻게 될 것이다.

주제어: 평화, 정약용, 폭력, 비폭력, 임마누엘 칸트, 요한 갈통, 적극적인 평화, 현실적인 평화.

I. 머리말

이 논문은 평화(Peace)라는 단일 주제를 가지고 정약용의 사상을 재구성한 기획논문이다. 정약용은 평화를 단일한 주제로 한 기획을 한 바 없기 때문에, 서구에서 근대 이후 형성된 평화학(Peace Studies)이라는 구체적인 방법론과 목적을 지닌 하나의 학적 체계로 그의 사상을 구성할 수는 없다.

다만, 평화라는 개념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언어와 표현은 각각 다를 수 있지만, 그 목적과 취지에 있어서는 상통하는 점이 분명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정약용의 평화론을 구성해보고자 한다.

평화라는 언어와 표현은 실사 동일하다 하더라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과 그 추구하는 목적은 각각 다르다. 누구는 도덕적 의미에서 또 누군가는 공리적 의미에서 평화를 논하고, 다른 한편으로 누구는 개인의 평화 또는 개인 간의 평화를 주장하고, 또 누군가는 국가 간의 평화, 또는 세계의 평화를 주장할 것이다.

정약용의 언설 속에서 평화의 개념을 규정한다는 목표는 애초 어려운 일이며, 본 논문의 목적도 아니다. 정약용이 살았던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의 조선사회는 평화학이 출발하여 정립되기 시작한 근대 서구의

다양한 국가들이 각축을 벌이던 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당시 조선에 국한한 관점에서 정약용만큼 사상적으로 서구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드물고, 종교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동서사상의 융합을 지향한 철학자는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조선에서는 대단히 선진적인 사람이었지만, 국가들 사이의 평화를 논할 정도로 조선이라는 국가의 주변 상황이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었다. 정약용이 중국적 천하관에 얽매이지 않고 조선천하를 주장하였지만 이것은 조선을 중심에 둔 지구적 천하관이었을 뿐 지구 내 국가들 간의 상호 평화를 전제로 하는 세계는 아니었다.

정약용이 조선이라는 국가를 재조(再造)하고 수호하기 위해 행했던 개혁 조치들과 주장들은 기본적으로는 사대교린의 구도 아래 대국과 소국의 틈바구니에서 조선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방책이었다. 따라서 조선사회에서 그리고 정약용에 있어서 평화학 내지는 평화사상을 논하고자 한다면 서구적 또는 한국의 현재적 프레임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점이 분명 존재할 것이다. 다만 그 평화가 개인의 명상적 평화이든 개인 간의 무폭력적 평화이든 또는 국가 간의 전쟁 없는 평화이든 그 평화가 가져다주는 경계(상태)는 동일할 것이다.

Ⅱ. 다산 정약용이라는 인물

1. 인물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은 1762년(영조 38) 대한민국 남양주시(현재)에서 태어났으며, 1836년(헌종 2) 그곳에서 서거하였다. 어릴 때의 이름은 귀농(歸農)이며, 15세에 관례를 치르고 받은 이름이 약용(若鏞)이

다. 호(號)로는 다산(茶山), 사암(俟菴), 여유당(與猶堂) 등이 있다.

정약용의 75년간의 생애는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789년 그의 나이 28세에 첫 벼슬을 하기 이전까지의 수학 시기와 1800년 39세까지의 관직 생활 시기, 1818년 57세까지 18년간의 유배 생활 시기, 그리고 1836년 서거하기까지의 고향 체류 시기로 구분하는데, 이것은 사상적 변화의 구분이기도 하며 그의 인생 자체의 부침의 구분이기도 하다.

수학 시절의 정약용은 남인(南人) 가문의 영향과 천주학에 깊게 연루되어 있는 인척들의 영향을 동시에 받았다. 성호(星湖) 이익(李瀾, 1681~1763)의 실학을 접하고 그것을 사상의 지표로 삼아 공부하였으며, 이승훈(李承薰, 1756~1801)과 이벽(李穡, 1754~1786)을 통해 서양의 과학 서적과 천주학 교리서 등을 얻어 보고 서학을 깊이 있게 학습하였다.

28세에 관료생활을 시작한 정약용은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는데, 이 시기에 정조(正祖, 재위 1776~1800)의 명을 받아 한강의 배다리 설계를 하였으며, 수원 화성의 설계를 맡으면서 거중기, 활차(滑車) 등의 기계를 제작하여 직접 건설에 이용하였다. 탁월한 재주로 정조의 총애를 받고 측근에서 보좌하였으나, 1795년 청나라 선교사인 주문모(周文謨) 밀입국 사건에 연루되어 잠시 지방관으로 좌천되기도 했다. 1800년 정조가 승하하기 직전까지 정조를 도와 정부 요직에서 근무하였다. 이 시기에 그는 이상주의적이고 급진적이었으며 주자학에 대한 깊은 회의와 서학에 대한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1801년부터 1818년까지 18년간의 유배 시기는 저작 활동의 절정기였다. 이때에 사서(四書)와 육경(六經)에 대한 주석서를 비롯한 저작들을 만들어내는데, 주로 주희의 성리학(性理學)적 세계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관을 도출시킨 시기였다. 이 시기는 개혁의 주체와 방법 및 그 철학적 원리까지도 포함한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대 저작이 이루어진 사상의 완숙기였다. 오늘날 ‘다산학(茶山學)’이라고 명명되는 대부분의 저작이

이 시기에 저술되었다. 주희 성리학에서는 우주자연의 원리인 천리(天理)가 인간 본성의 원천이자 근거라는 이른바 ‘성즉리(性卽理)’를 주장하였다면, 다산학에서는 송대에 형성된 사서(四書)보다 한대의 육경(六經)을 앞세워 본원유학(공자와 맹자의 학문)으로의 회귀를 주장하였고, 인간의 본성은 선천적으로 고정된 원리가 아니라 선을 즐기고 악을 미워하는 경향성이라고 보았다.

1818년 후반부터 1836년 사망할 때까지 말년의 고향 체류 시기에는 이전 저작에 대한 개정 증보 작업에 치중했으며, 당색을 가리지 않고 당대 거유들과 서신 교환이나 왕래를 통해 학술토론을 자주 하였다. 1836년 결혼 60주년 기념일(음력 2월 22일)에, 본인이 태어난 마을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으며, 그의 유언에 따라 살던 집인 여유당(與猶堂) 뒷동산에 안장되었다.

그 후 1883년에 고종(高宗, 재위 1863~1907)의 명으로 정약용의 저작들을 모아서 『여유당집(與猶堂集)』으로 필사하여 왕실 도서관에 수장하였으며, 1910년 문도공(文度公)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1930년대에 국민성금으로 위당 정인보 등이 주도하여 『여유당전서』를 간행하였다.

2. 사상

정약용의 학문은 크게 3가지의 지향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성리학적 세계관을 해체하고 동서사상의 융합을 선도하는 것이었다. 정약용의 사상은 당시 조선사회의 주류 학문인 주희(朱熹, 1130~1200)의 신유학과 아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정약용은 신유학의 핵심 용어인 리(理; 추상적 원리 또는 궁극적 실체)가 스스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것, 즉 반드시 기(氣; 구체적 세계)에 의해서만 현상적으로 드러

날 수 있는 속성일 뿐이라고 보았다. 주희가 인간 본성의 내용이라고 보았던 도덕과 인의는 정약용에게 있어서는 선(善)에로의 지향성(嗜好)으로 대체되었다. 정약용에게 인의도덕은 주희의 주장처럼 선험적인 것이 아니라 결과적인 것이다. 정약용은 인간 본성의 내용을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樂善恥惡) 경향성' 다시 말해 선에로의 지향성이라고 보았다. 정약용은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논하면서 결정된 것, 운명적인 것, 피할 수 없는 것 등의 초월적 관념을 피하고, 자율성에 근거한 경험적 본성을 주장하였다. 대신에 인격적 하느님(上帝)을 존재의 최고 단계에 놓고, 그 하느님으로부터 인간이 영성(靈性)을 본성의 내용으로 받았다고 보았는데, 그 영성이 바로 선에로의 지향성이다. 정약용은 천주교의 하느님을 동양 고전에서 재발견해 냄으로써 서양종교의 신앙이 동양의 고대에도 같은 방식으로 존재했던 것임을 증명하고, 이를 통해 동서 사상의 융합을 시도했다고 규정할 수 있다.

둘째, 유학의 목표인 수기치인의 실현을 위한 경전 탐구(窮經)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정약용의 학문은 수기치인(修己治人)으로 정의되는, 자기수양과 그것의 사회적 실천을 이론의 두 기둥으로 삼고 있다. 정약용은 자신의 저작 중에서 『주역사전(周易四箋)』과 『상례사전(喪禮四箋)』을 최대의 역작으로 여겼다. 정약용이 이해하는 『주역』은 신유학자들의 말처럼, 하늘의 이치와 인간의 윤리가 총체적으로 담겨 있는 절대 진리서가 아니라 중국 은나라 말기와 주나라 초기의 문화 내용을 담고 있는 한정된 시공간의 텍스트였다. 그 텍스트에서 상제(하느님, 최고 절대자)를 경건하게 섬겼던 당대인들의 문화와 정신을 읽어낼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예서(禮書; 『주례(周禮)』, 『의례(儀禮)』, 『예기(禮記)』)에는 당시 인간사회의 질서정연한 모습을 읽어낼 수 있다고 보았다. 곧, 하느님을 경배하며 경건한 믿음의 체계를 지녔던 고대인들의 생활태도를 알기 위해서 학자들은 반드시 옛 경전을 탐독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셋째,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의 분리를 통해 동양 인문학의 재정리와 자연과학의 분과화를 시도하는 것이었다. 정약용이 생각하는 유학의 내용은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며 외적을 물리치고 국가의 재정을 넉넉하게 하며 학문과 무예를 잘하며 모든 분야를 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약용은 유학의 기본 경전들이 수기치인을 강조하면서도 실용성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여러 실용서들을 저술했다. 대표적인 것이 1표2서(『경세유표(經世遺表)』, 『목민심서(牧民心書)』, 『흠흠신서(欽欽新書)』)이다. 1표2서는 세상경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현대적 의미에서 본다면 경영학서, 정치학서, 법률학서라고 표현할 수 있다. 정약용의 저술 작업은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다. 음악, 의학, 언어학, 수학 등의 단독 논문 또는 저작 등을 남김으로써 근대적 분과학문의 선도적 분류를 시도했다. 이것은 정약용이 서양 학문의 영향을 받아 종래의 유학 경전들을 도덕윤리의 학문으로 규정하고, 이와는 다른 학문 영역을 새롭게 분과화 했던 것으로 말할 수 있다.

Ⅲ. 분쟁의 조정과 평화의 수호

『동아일보』 1972년 11월 13일자 제3면에서 “평화통일 지향의 유신적 개혁 중앙선위(中央選委) 국민투표 지도계몽 담당자 좌담”이라는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다. 최덕신(崔德新, 天道教 教領), 김윤찬(金允燦, 大韓基督教聯合會 會長), 주관중(朱冠中, 前靑瓦臺政務秘書官), 용태영(龍太暎, 司會, 首都辯護士會會長)이 좌담한 내용 중에 박정희의 유신개혁을 정약용의 실학사상과 동일시한 부분이 눈에 띄었다. 그 일부를 소개한다.

金 : 열핏 보아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뽑는 건 국민이 다 선거에 참여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건 계단 하나를 더 놓는 데 불과한 것이지 사실은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납니까.

龍 : 그렇지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제도상 차원을 높인 것이지요.

朱 :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이번 개헌안의 중심 장(章)입니다. 그 속에 통일정신, 민족정신, 능률정신, 새마을정신 등이 모두 함축되어 있어요. 대통령 간선제도 150년 전 다산 정약용 선생의 책을 보면 태고(太古) 때 간선제가 있던 걸 설명해 놓았어요. 나는 박대통령의 민족철학은 정약용, 박지원, 박제가, 이익 등 실학파 학자들의 사상과 통하는 신실학파(新實學派)로 규정하고 싶어요. 특히 다산의 경세제민(經世濟民) 사상은 박대통령의 사상에 그대로 부각되었어요.¹⁾

이 좌담은 해석과 관점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철학적 다원주의가 과연 타당한가 하는 회의를 가져다준다. 유신헌법에 의해 구성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통령 간선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기획된 이 좌담회는 박정희의 민족철학을 정약용, 박지원, 박제가, 이익 등의 실학파의 사상을 계승한 신실학(新實學)이라고 강변한다. 주관중이 언급한 정약용의 간선제는 『여유당전서』 시문집의 「원목(原牧)」편에 나오는 말이다.

옛날에야 백성이 있었을 뿐 어찌 목민자가 있었던가? 백성들이 용기종기 모여 살면서 한 사람이 이웃과 다투다가 해결을 보지 못한 것을 공언(公言: 공적인 발언)을 잘하는 어른이 있어 그에게 가서 해결을 보고 온 마을의 이웃들이 모두 감탄한 나머지 그를 추대(推戴)하여 높이 모시고는 그를 이정(里正)이라고 불렀다. 또 여러 마을 백성들이 자기 마을에서 해결 못한 다툼 거리를 가지고 준수하고 식견이 많은 어른을 찾아가 그를 통해 해결을 보고는 여러 마을들이 모두 감탄한 나머지 그를 추대하여 높이 모시고서 당정(黨正)이라고 불렀다. 또 여러 고을 백성들이 자기 고을에서 해결 못한 다툼거

1) “평화통일 지향의 유신적 개혁 중앙선위(中央選委) 국민투표 지도계몽 담당자 좌담,” 『동아일보』, 1972년 11월 13일, p. 3.

리를 가지고 어질고 덕이 있는 어른을 찾아가 그를 통해 해결을 보고는 여러 고을이 모두 감탄하여 그를 주장(州長)이라고 불렀다. 또 여러 주(州)의 장(長)들이 한 사람을 추대하여 어른으로 모시고는 그를 국군(國君)이라고 불렀으며, 또 여러 나라의 군(君)들이 한 사람을 추대하여 어른으로 모시고는 그를 방백(方伯)이라고 불렀고, 또 사방의 백(伯)들이 한 사람을 추대하여 우두머리로 삼고서 그를 황왕(皇王)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황왕의 근본은 이 정에서부터 시작되니, 결국 목민자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²⁾

정약용의 시대에 목민관은 임명직이었기 때문에 「원목」에서 말하는 선출직으로서의 목민관과는 엄연히 다르다. 그러나 「원목」편의 주장은 아주 오랜 옛날 최초로 어느 집단의 우두머리가 폭력이나 무력에 의해 된 것이 아니라 그 집단 구성원의 추대와 합의에 의해 세워진 것이라는 역사적 가정 하에 목민관뿐 아니라 군주, 황제에 이르기까지 목민의 정신과 취지를 분명히 하여 민본주의의 목표를 설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회제도가 없던 당시에 정약용이 말하고 있는 ‘목(牧)’은 목민관, 곧 지방 방백을 가리킨다. 오늘날의 시장, 군수, 지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오늘날 추대의 형식은 고대와 다르겠지만, 선거에 의해 선출된, 아마도 추대된 것으로도 말할 수 있는, 선출직은 국가기관으로 보면 이런 방백뿐만 아니라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등이 모두 해당된다.

이렇게 선출된 자들은 그 집단의 민의를 대변하는 자들이다. 이론적으로는 하급 단계에서부터 최상급 단계까지 민의가 수렴된 것으로 본다면

2) 『定本 與猶堂全書』 2, 文集 권10, 「原·原牧」, pp. 206~207. “遼古之初, 民而已, 豈有牧哉? 民于于然聚居, 有一夫與鄰閭莫之決, 有叟焉善爲公言, 就而正之, 四鄰咸服, 推而共尊之, 名曰里正. 於是數里之民, 以其里閭莫之決, 有叟焉俊而多識, 就而正之, 數里咸服, 推而共尊之, 名曰黨正. 數黨之民, 以其黨閭莫之決, 有叟焉賢而有德, 就而正之, 數黨咸服, 名之曰州長. 於是數州之長, 推一人以爲長, 名之曰國君, 數國之君, 推一人以爲長, 名之曰方伯, 四方之伯, 推一人以爲宗, 名之曰皇王. 皇王之本, 起於里正, 牧爲民有也.”

국회의 입법과 행정부의 법 집행은 그야말로 민의의 대변인 셈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유가의 민본주의(民本主義)는 백성을 근본으로 한다지만 실제로는 위민정치(爲民政治)이다. 민본(民本)과 정본(政本)으로 구별되는, 다시 말해 정치의 주체와 대상이 분리된 이념이다. 정약용의 말대로 목민자는 당연히 백성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비록 추대와 합의에 의해 세워진 자들이라 하더라도 정치의 무대에 서게 되면 백성과는 유리된 통치자로 변모한다. 형식적으로 백성 가운데서 통치자가 탄생하지만 통치자는 백성은 아닌 사람이다. 근대 서구의 사회계약론자들이 자연상태(state of nature, natural condition of mankind)라는 관념적 지평으로부터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낸 것처럼, 정약용도 태곳적 원시상태(濛古之初)라는 관념적 지평으로부터 이상적 정치의 모델을 설정했다. 따라서 이러한 구도는 관념적 정당성이 필요할 뿐 실증적 논리를 통해 논증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다만 정약용의 「원목」을 통해 통치자의 바람직한 행위가 피통치자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이상을 취하면 된다.

정약용의 목민관은 개인 사이의 분쟁의 조정자로 등장한다. 한 마을의 분쟁의 조정자는 이정(里正)이 되고, 마을 간의 분쟁의 조정자는 당정(黨正)이 되고, 고을 간의 분쟁 조정자는 주장(州長)이 된다. 그런데 이 단계까지는 추대의 형식으로서 오늘날의 직접선거의 형식이지만, 주장(州長)보다 더 높은 단계의 통치자인 국군(國君), 방백(方伯), 황왕(皇王)은 간접 선출의 형식으로 추대된다. 다시 말해 주장들이 모여 국군을 뽑고, 국군들이 모여 방백을 뽑고, 그 방백들이 모여 황왕을 추대하는 방식이다. 이정부터 주장까지는 직접 추대로 뽑고, 국군부터 황왕까지는 간접 추대로 뽑는다. 오늘날은 마을의 이장에서부터 입법부의 의원, 행정부의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사법부는 예외이지만, 모두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그러나 실제로 역사의 무대에서 「원목」과 같이 지도자가 선출된 적은

동서고금에 없다. 정약용이 말한 ‘태곳적(濼古之初)’은 관념의 산물일 뿐이다. 우리는 다만 정약용의 의도를 읽으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주목할 것은 통치자가 분쟁의 조정자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분쟁은 충돌과 갈등, 폭력을 수반한다. 평화를 갈등 없는 상태, 폭력 없는 상태로 규정한다면, 결국 지도자는 분쟁의 조정자이자 평화의 수호자인 것이다. 목민자의 탄생 목적이 분쟁 없는 상태라면, 평화의 상태라고도 할 수 있는, 정약용이 바라본 개인에서부터 집단, 사회, 국가에 이르는 모든 사회 조직은 평화를 목적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태곳적이 아닌 현실 속에서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원목」에서 말하는 분쟁 없는 평화의 상태는 민의가 최대한 반영되어야만 가능한 상태이다. 만약 민의가 반영되지 않은 통치자가 추대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탕론(蕩論)」에서 그 해결책이 제시된다.

대저 여러 사람이 추대해서 만들어진 것은 또한 여러 사람이 추대하지 않으면 물러나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5가가 화협하지 못하게 되면 5가가 의논하여 인장(鄰長)을 개정(改定)할 수가 있고, 5린이 화협하지 못하면 25가가 의논하여 이장(里長)을 개정할 수가 있고, 구후(九侯)와 팔백(八伯)이 화협하지 못하면 구후와 팔백이 의논하여 천자(天子)를 개정할 수가 있다. 구후와 팔백이 천자를 개정하는 것은 5가가 인장을 개정하고 25가가 이장을 개정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누가 신하가 임금을 쫓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또 개정함에 있어서도 천자 노릇만 못하게 할 뿐이지 강등(降等)하여 제후로 복귀하는 것은 허락하였다. 때문에 주(朱)를 당후(唐侯)라 했고 상균(商均)을 우후(虞侯)라 했고 기자(杞子)를 하후(夏侯)라 했고 송공(宋公)을 은후(殷侯)라 했다. 완전히 끊어버리고 후(侯)로 봉(封)하여 주지 않은 것은 진(秦) 나라가 주(周)나라를 멸망시키고부터이다.³⁾

3) 『定本 與猶堂全書』 2, 文集 권11 「論·蕩論」, p. 304. “夫衆推之而成, 亦衆不推之而不成, 故五家不協, 五家議之, 改鄰長, 五鄰不協, 二十五家議之, 改里長, 九侯八伯不協, 九侯八伯議之, 改天子, 九侯八伯之改天子. 猶五家之改鄰長, 二十

「탕론」은 중국에서 상나라를 세운 탕왕(湯王)이 하나라의 마지막 왕인 걸왕(桀王)을 추방한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정권의 교체, 왕조의 교체 등의 정당성을 설파한 글이다.

탕왕은 걸왕의 제후로서 걸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를 연 사람이다. 그는 하늘의 명에 따라 도탄에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으며, 그가 군대를 일으키자 나라 안의 온 백성이 환영했다고 한다.

걸왕은 이미 세습된 왕이긴 하였지만, 형식적으로는 추대된 자로서 민의를 최상급 단계에서 대변하고 있는 자이다. 따라서 정통성이 있는 왕이다. 그런 왕을 탕이라는 새로운 자가 폭력으로 전복시켰다. 이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탕론」이다. 새로운 평화를 위해 폭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 그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평화적인 정권교체는 '선양(禪讓)'이라 한다. 동일한 왕조 내의 선위(禪位)뿐 아니라 왕조가 교체되는 역성(易姓)까지도 선양의 형식으로 무폭력 교체가 있을 수 있다. 반면에 폭력적 정권교체는 '혁명(革命)' 또는 '방벌(放伐)'이라 하였다. 혁명은 천명이 바뀌는 것이므로 주로 역성혁명을 가리켰고, 방벌은 폭력적 또는 비도덕적 군주에 대한 정당한 교체를 의미했다. 요순우(堯舜禹)의 정권교체는 선양의 전범으로, 탕왕과 무왕의 왕조교체는 방벌의 전범이다. 탕왕과 무왕의 왕조교체는 역성혁명이기도 했다.

혁명, 방벌, 선양 등의 교체가 방법이야 무엇이든 간에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이 정약용의 질문이지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원목」 편이 바로 답인 셈이고, 이것을 실제의 인물인 탕왕과 걸왕을 예로 들어 「원목」과는 반대의 방향에서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탕론」이다. 추대와

五家之改里長，誰肯曰臣伐君哉？又其改之也，使不得爲天子而已，降而復于諸侯則許之，故唐侯曰朱，虞侯曰商均，夏侯曰杞子，殷侯曰宋公。其絕之而不侯之，自秦于周始也。

꼭 같은 방식으로 퇴출도 가능하다. 협의에 의해 추대된 집단의 장은 마찬가지로 협의에 의해 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는 것이 「탕론」의 핵심이다. 따라서 신하가 천자를 몰아낸 것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는 협의에 의한 정당성을 확보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한(漢) 나라 이후로는 천자가 제후를 세웠고 제후가 현장을 세웠고 현장이 이장을 세웠고 이장이 인장을 세웠기 때문에 감히 공손하지 않은 짓을 하면 ‘역(逆)’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른바 역이란 무엇인가. 옛날에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추대하였으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추대한 것은 순(順)이고, 지금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세웠으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세운 것은 역(逆)이다. 그러므로 왕망(王莽)·조조(曹操)·사마의(司馬懿)·유유(劉裕)·소연(蕭衍) 등은 역이고, 무왕(武王)·탕왕(湯王)·황제(黃帝) 등은 현명한 왕이요 성스러운 황제(皇帝)이다.⁴⁾

「탕론」의 결론에 따르면, 탕왕의 반역은 오히려 순치(順治)가 된다. 이미 탕왕 이전에 황제가 염제(炎帝)를 방벌한 선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탕왕 이후에는 상나라의 주왕(紂王)을 방벌한 주나라의 무왕(武王)의 사례가 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추대하는 것이 순(順)의 방향이므로 추대된 자가 추대되지 않은 자, 곧 퇴출되어야 할 자를 방벌한 것이니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탕론」의 “옛날에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추대하였으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추대한 것은 순(順)이고, 지금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세웠으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세운 것은 역(逆)이다(古者, 下而上, 下而上者, 順也. 今也, 上而下, 下而上者, 逆也)”라는 말은, 마치 오늘날의 상향식 민주주의

4) 『定本 與猶堂全書』 2, 文集 권11 「論·蕩論」, p. 305. “自漢以降, 天子立諸侯, 諸侯立縣長, 縣長立里長, 里長立鄰長, 有敢不恭其名曰逆. 其謂之逆者何? 古者, 下而上, 下而上者, 順也. 今也, 上而下, 下而上者, 逆也. 故莽·操·懿·裕·衍之等, 逆也, 武王·湯·黃帝之等, 王之明·帝之聖者也”.

는 옳고, 하향식 민주주의는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통치자(上)가 국민(下)을 통치의 대상으로 삼아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며, 구미에 맞는 관료를 세워 하향식으로 명령을 국민에게까지 미치게 한다면, 그것은 「원목」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태곳적 자연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순(順)의 방식 곧 상향식 인물 추대와 정책 제안 등을 거스르는 행위가 된다.

그러나 「원목」과 「탕론」의 주장은 통치자의 선출과 퇴출에 대한 정당성을 논한 것일 뿐,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일련의 사태에 행사된 무력과 폭력이 천명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민의를 대변한 정치적 행위로 미화되고 결과적인 정당성만 부여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평화가 폭력 없는 안정된 상태를 지시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평화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 조선이라는 국가의 평화유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V. 국가의 안정과 평화의 유지

정약용은 ‘신아지구방(新我之舊邦)⁵⁾을 목표로 수많은 개혁정책을 주장하였는데 그 실질적인 내용은 부국유민(富國裕民)이었다. 그의 여러 주장들을 재해석해 보면 국가의 안정과 평화의 유지가 부국유민의 한 방편임을 알 수 있다.

정약용은 「군기론(軍器論)」에서 『자치통감(資治通鑑)』에서 인용하고

5) 『定本 與猶堂全書』 3, 文集 권16 「墓誌銘·自撰墓誌銘集中本」, p. 275. “經世者何也? 官制, 郡縣之制, 田制, 賦役, 貢市, 倉儲, 軍制, 科制, 海稅, 商稅, 馬政, 船法, 營國之制, 不拘時用, 立經陳紀, 思以新我之舊邦也”.

있는 병법의 “기계(器械)가 예리하지 못하면 그 군졸(軍卒)을 적(敵)에 내어주는 것이고, 군졸을 잘 쓸 수 없으면 그 장수를 적에게 내어주는 것이다”⁶⁾라는 말을 인용하여, 무기가 예리하지 못하면 군졸을 적에게 내어주는 것이고, 군졸을 잘 쓸 수 없으면 장수를 적에게 내어주는 것이 된다고 하였다. 군대의 무기가 비축되어 있지 않으면 마치 맨손으로 호랑이를 만난 것과 같아 결국 나라를 빼앗기기에 이를 것이다. 이처럼 ‘군기론’은 국가 방비를 위한 가장 실제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체로 군사는 기계를 손에 쥐고서 다른 사람을 방어하는 것이니, 비록 군사가 천 명 만 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맨손으로 싸우게 한다면 이는 군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썩고 무디고 부서진 기계를 갖게 한다면 이 역시 군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국가가 가난하고 또 법이 없으면 군대를 양성할 수 없으니, 군대를 양성하지 못하면 무예(武藝)를 연습할 수 없고, 무예 연습이 폐지되면 기계(器械)를 창고에만 쌓아 두게 되고, 기계를 쌓아만 두면 썩고 무더지고 파손되어버릴 것이다.

지금 각 군현에 저장된 군기(軍器)로 말하면, 활을 들어보면 좀먹은 부스러기가 활살 쏟아져 내리고, 화살을 들어보면 새 깃(翎)이 수북하게 쏟아져 내리며, 칼을 빼어보면 칼날은 칼집에 붙어 있는 채 칼자루만 빠져 나오고, 총(銃)을 보면 녹이 슬어서 구멍을 꼭 메웠으니, 만일 갑자기 환난(患難)이라도 있게 되면 온 나라가 모두 맨손뿐인 것이다.

지금 비록 남방(南方)·북방(北方)에 아무런 경보(警報)가 없고 변경(邊境)에 아무런 근심거리가 없다 하더라도 군대는 제도(制度)가 있어야 한다. 제도가 없이는 군대를 양성할 수 없고 군대를 양성하지 못하면 군기만으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 준비가 없어서야 되겠는가.⁷⁾

6) 『定本 與猶堂全書』 2, 文集 권11 「論·軍器論一」, p. 279. “兵法曰, ‘器械不利, 以其卒子敵也. 卒不可用, 以其將子敵也.’” 여기에 인용된 병법은 본래 『漢書』 권49, 「爰盎黽錯傳」에 처음 등장한다.

정약용은 당시 조선의 무기들이 형편없이 낡고 녹슨 상황을 안타까워 하였다. 활은 좀먹어 부스러기가 날리고, 화살은 새 깃털이 떨어져 있고, 칼은 녹아서 칼집과 한 몸이 되어 뽑으면 칼자루만 나오고, 총은 녹슬어 총구를 막고 있으니, 환난을 방어할 수단과 도구가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무기는 공격과 수비의 도구인데, 공격은 고사하고 수비마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한 국가의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방비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외적의 침입 없이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그 평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군대의 양성과 무기의 정비가 절실하다.

애초에 정약용의 관념 속에는 칸트(I. Kant, 1724~1804)가 『영구평화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국가 간의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조항”⁸⁾ 같은 국가 간의 평화 관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쩌면 칸트가 희망한 국제연맹 같은 조직체는 동양사의 관점에서는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남의 얘기일 것

7) 『定本 與猶堂全書』 2, 文集 권11 「論·軍器論一」, pp. 279~280. “國家貧且無法, 無以養兵, 兵不養則無以練習, 練習廢則器械藏, 器械藏則朽鈍破缺已矣. 今郡縣所藏之器, 弓舉之則蠹沙洩洩然, 矢舉之則羽簌簌然, 刀拔之則刃黏于室而徒柄出焉, 銃砥之則鏽塞竅焉, 一朝有患, 通國皆赤手也. 雖然南北無警, 壘場無虞, 兵可有制, 不可徒養, 兵不養則徒器無爲也. 雖然惡可無備也?”

8) 임마누엘 칸트, 이한구 옮김, 『영구평화론』 (서울: 서광사, 2013년 개정판(초판 1992년)), pp. 15-23 참조. 칸트는 “국가 간의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조항”으로 여섯 가지를 들고 있다. 1. 장차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로 맺은 어떠한 평화조약도 결코 평화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2. 어떠한 독립국가도 (크고 작고에 관계없이) 상속, 교환, 매매 혹은 증여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될 수 없다. 3. 상비군은 조만간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4. 국가 간의 대외적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제도 발명되어서는 안 된다. 5.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6. 어떠한 국가도 다른 나라와의 전쟁 동안에 장래의 평화 시기에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 틀림없는 다음과 같은 적대행위, 예컨대 암살자나 독살자의 고용, 항복조약의 파기, 적국에서의 반역 선동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다. 단지 조선이라는 나라의 사대교린 외교정책 하에서의 평화가 중요했다. 과거나 지금이나 동아시아의 국가는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라기보다는 위계적 질서가 압도한다. 최근 수십 년간만을 놓고 보면 서구식 근대국가로서 대등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긴 하지만.

특정되지 않은 가상의 적의 공격에 대비해 군대를 양성하고 무기를 정비하는 것은 국가의 안정과 평화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을 「군기론」에서 제기하고 있다.

무릇 백성들 가운데 백공(百工)의 기예(技藝)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호역(戶役)을 면제해 주고, 그 부역(賦役)을 견감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읍(邑)에 모여 살게 하고 촌리(村里)에 흩어져 살지 못하게 하고서, 매월(每月) 한 사람의 양식을 대어주면서 그의 이름을 군적(軍籍)에 편입(編入)시키고, 수령(守令)이 때때로 그 기능(技能)의 교묘(巧妙)하고 서툰 것을 심사 비교하여 그 양식을 더 주기도 하고 덜 주기도 하며, 그 가운데 기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선발하여 장관(將官)으로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각기 격려하고 권장하도록 한다면, 갑자기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때에 맞춰 군기를 제조할 수 있을 것이다.

장수(將帥)가 된 사람이 혹 모책(謀策)과 사려(思慮)를 내어 새로운 방법으로 기이한 군기를 만들어서 적(敵)을 방어하는 데 있어, 백공(百工)들이 각기 그 기능으로 이바지한다면 적을 쳐부수는 데 무엇이 어렵겠는가. 이것이 무비(武備)가 되는 데 있어 어찌 주도(周到)하고도 세밀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 썩고 무디고 파손된 무기를 쌓아 두고서 은연중에 이를 믿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여기는 자와는 서로의 차이가 매우 멀다.⁹⁾

9) 『定本 與猶堂全書』 2, 文集 권11 「論·軍器論一」, p. 280. “凡民之有百工技藝者, 復其戶蠲其庸, 令聚居于邑, 毋得散處村里, 月繼其一口之糧, 而編其名于軍籍, 守令以時考較其技能巧拙, 以增減其糧, 其有卓異者, 拔之爲將官, 令各激勸, 一朝有患, 器械可製也. 爲將帥者, 或發謀出慮, 製爲奇器新式以禦敵者, 百工各奏其能, 則其於破敵也, 何有? 斯之爲武備也, 豈不周且密矣乎? 與其藏朽鈍破舛, 而隱然恃之爲有備者, 相去遠矣”.

외부의 폭력적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적 방법은 기능인에 대한 처우 개선이다. 기예를 가진 사람을 잘 대우하고 그 기능을 잘 권장하면 언제라도 무기를 제조할 수 있고, 신무기의 개발이나 신기술의 개발도 가능하다.

평화시에도 대비하지 않으면 곧 패망에 이르게 된다. 국가의 패망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 평화에 도취하여 안락함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고구려의 패망 원인을 긴장감 없는 평화에만 안주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고구려(高句麗)는 졸본(卒本)에 도읍을 정한 지 40년 만에 불이성(不而城)으로 옮겼고 여기서 4백 25년 동안 나라를 누렸다. 이때는 군사력이 매우 강성하여 국토를 널리 개척하였다. 한(漢) 나라와 위(魏) 나라 때 중국이 여러 번 군사를 내어 침략해 왔으나 이길 수 없었다. 장수왕(長壽王) 15년(427)에 평양(平壤)으로 도읍을 옮겼고 여기서 나라를 누린 지 2백 39년 만에 멸망하였다. 비록 백성과 물자가 풍부하고 성곽(城郭)이 견고했으나 마침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압록강(鴨綠江) 북쪽은 기후(氣候)가 일찍 추워지고 땅이 몽고(蒙古)와 맞닿았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굳세고 용감하다. 또 강한 오랑캐와 섞여 살기 때문에 사면(四面)으로 적국의 침입을 받게 되므로 방비가 매우 튼튼하였다. 이것이 나라를 장구히 누릴 수 있었던 까닭이다. …

아, 평양은 믿을 수 있는 곳인가? 요동성(遼東城)이 함락되면 백암성이 위태하고, 백암성이 함락되면 안시성이 위태하고, 안시성이 함락되면 애주(愛州)가 위태하고, 애주가 함락되면 살수(薩水)가 위태하다. 살수는 평양의 울타리인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고 가죽이 벗겨지면 뼈가 드러나게 된다. 이런데도 평양을 믿을 수 있겠는가.

진(晉) 나라와 송(宋) 나라는 남쪽으로 양자강(揚子江)을 건넌 뒤 천하를 잃었으니 이는 거울삼아 경계해야 될 중국의 전례(前例)이고, 고구려는 남쪽으로 압록강을, 백제(百濟)는 남쪽으로 한강(漢江)을 건넌 뒤 나라를 잃었으니 이는 귀감으로 삼아야 할 우리나라의 전례이다.

경전(經傳)에는, “적국(敵國)으로 인한 외환(外患)이 없는 나라는 망한

다” 했고, 병법(兵法)에는 이렇게 말했다. “죽을 곳에 처해야만 살게 된다.”¹⁰⁾

고구려는 북방의 거친 환경에서 425년 동안 강성하였고 국토를 널리 개척할 수 있었다. 대륙의 거대한 왕조들의 침략에도 대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장수왕이 427년 평양으로 도읍을 옮긴 뒤 239년 만에 멸망하였다. 평양은 저 북방보다 물자가 풍부하였고, 성곽도 견고하였지만 멸망을 피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바로 안락함에 도취하여 평화로움을 만끽할 뿐 비평화 상태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은 끊임없이 거친 환경의 도전에 응전하면서 국민이 단련되어야 한다. 고구려가 추운 지역에서 사나운 몽골과 늘 대치하고 있었을 때는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를 피해 따뜻한 지역으로 옮겨서 안락한 평화를 즐기면서 패망의 길로 나아갔다. 안락한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평화를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한다면, 평화시나 비평화시나 간에 고구려는 지속적으로 전쟁 상태여야만 평화가 유지되었다. 고구려라는 국가 내지는 왕조의 존속 그 자체가 평화는 아니다. 평화는 고구려를 위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거친 환경 속에서의 국가의 평화 유지는 조금 덜한 전쟁상태이며, 안락한 환경 속에서의 국가의 비평화 곧 패망

10) 『定本 與猶堂全書』 2, 文集 권12 「論·高句麗論」, pp. 329-330. “高句麗都卒本四十年, 【即紇升骨城】徙都不而城, 【即尉那巖城】厥享國四百二十有五年. 此時士馬強壯, 疆土恢拓, 漢·魏之際, 中國屢發兵侵擾, 莫之能勝. 至長壽王十五年, 徙都平壤, 厥享國二百三十九年而亡. 雖民物殷富, 城郭鞏固, 卒莫有補, 若是者何也? 鴨綠之北, 風氣早寒, 地與蒙古接, 其人皆雄勍驚悍, 又疆胡雜處, 四面受敵, 故其備禦深固, 此所以能長久也. … 嗟乎! 平壤其足恃乎? 遼東拔則白巖危, 白巖拔則安市危, 安市拔則愛州危, 愛州拔則薩水危, 薩水者, 平壤之藩籬也. 脣亡則齒寒, 皮剝則骨露, 平壤其足恃乎? 晉·宋南渡而亡天下, 此中國之殷鑑也. 句麗·百濟南渡而失其國, 此東邦之覆轍也. 傳曰, ‘無敵國外患者亡.’ 兵法曰, ‘置之死地而後生’.”

은 아주 심각한 전쟁상태이다. 다시 말해 전쟁 없는 상태가 평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평화는 상대적으로 전쟁이 덜한 상태일 뿐이다.

평화학자 요한 갈통(J. Galtung, 1930~)은 평화를 ‘전쟁과 같은 물리적 폭력은 물론, 억압적 정치 시스템에 따른 구조적 폭력, 나아가 성차별이나 생태적 차별 같은 문화적 폭력마저 없는 상태’¹¹⁾라고 규정하였다. 갈통은 폭력을 물리적, 구조적, 문화적 차원으로 세분하여 해설한 것인데, 이러한 모든 폭력이 없는 상태를 ‘적극적인 평화(positive peace)’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평화라 말할 때 그 뜻은 전쟁을 비롯한 폭력이 없이 조용한 상태, 곧 ‘소극적 평화’ 혹은 ‘물리적 평화’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소극적 평화는 힘으로 질서가 만들어져 거기에 순응하고 침묵하는 경우다. 그러나 소극적 평화는 깨지기 쉽고 전쟁 직전의 일시적이고 과도적인 상태다.”¹²⁾ 이처럼 일반적인 의미에서 소극적 평화는 구조적 평화와 문화적 평화 없이는 그 한계가 명백하고 폭력의 위협으로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갈통은 구조적 평화와 문화적 평화를 아울러서 ‘적극적인 평화’를 말했던 것이다.

사실 갈통이 정의한 모든 폭력이 없는 적극적인 평화는 유토피아일 뿐이다. 현실에 존재한 적도 없고 존재할 가능성도 없는 유토피아라는 점에서, 이데올로기로서의 ‘이상적인 평화(ideal peace)’일 뿐이다. 이것은 마치 『누가복음』 23장 43절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라고 할 때의 낙원(paradise)이다. 완전한 비폭력상태가 아닌 불완전한 비폭력상태가 현실적인 평화이다. 약간의 갈등과 충돌, 심각하게는 전쟁까지 포함하여 폭력이 존재하는 평화, 곧 아이러니하지만 폭력이 수반되는 평화가 현실 속의 평화일 것이다.

11) 이찬수, 『평화와 평화들 -평화다원주의와 평화인문학』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6), p. 35에서 재인용.

12) 서보혁·정옥식, 『평화학과 평화운동』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6), pp. 21~22.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정약용의 반문이 이해될 수 있다. ‘안락함을 위해 평양성을 찾아왔지만, 과연 평양성은 안락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아니다. 결코 안락하다고 확신할 수 없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다. 중국의 진(晉)과 송(宋)은 남쪽으로 양자강(揚子江)을 건너 안락한 평화를 추구했지만 곧 나라를 잃었고, 고구려는 남쪽으로 압록강을 건너 풍요로운 평양에 도읍한 뒤에, 백제(百濟)는 남쪽으로 한강을 건넌 뒤 나라를 잃었다. 이것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때의 평화는 갈통이 정의한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평화가 아니라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불완전한 비폭력상태이지만, 폭력이 상존하는 평화를 추구해야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거친 환경의 폭력, 거친 이민족과의 충돌과 전쟁 등의 폭력이 어찌면 영구한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것이다. 나라의 이름을 유지하는 것이 영구한 평화는 물론 아니지만, 심각한 폭력에 의한 국가의 패망과 같은 폭력상태는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심각한 폭력이 아닌 작은 폭력, 전쟁까지도 포함하는, 약간의 충돌 등이 국가의 평화 유지의 필요조건인 셈이다.

정약용이 인용한 경전(經傳)의 “적국(敵國)으로 인한 외환(外患)이 없는 나라는 망한다”는 말이나, 병법(兵法)의 “죽을 곳에 처해야만 살게 된다”는 언급은 바로 갈통의 관점에서 보면 소극적인 평화이다. 죽을 곳에 있어야만 살게 되는, 곧 폭력 속에서만 평화가 유지되는 현실적인 평화의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전적 정의의 하나로 평화를 ‘평온하고 화목함’이라고 정의할 경우, 동어반복처럼 평온과 화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사전적 정의로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 또는 그런 상태’라고 정의할 경우에도 동어반복은 계속된다. 전쟁은 무엇이고, 분쟁은, 갈등은, 평온함은, 더 나아가 그런 상태는 무엇인가라는 개념의 유희에 빠질 수밖에 없다. 평화를 정의하기 위해 술어로 기술된 언어들

은 또 다른 정의를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다. 게다가 평화가 ‘전쟁은 물론 일체의 갈등마저 없는 상태’라는 정의는 지나치게 이상적이어서 지상천국을 연상케 한다. 가장 간결한 형태로 ‘평화는 폭력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할 경우에도 폭력의 종류도 다양하고 범주도 넓어서 어떤 폭력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다. 결국 평화를 논하려 하면 폭력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데 아주 복잡한 악순환에 빠지고 만다.¹³⁾

V. 현실적 평화주의자의 위안

정약용은 적어도 동아시아 사회를 어떻게 평화롭게 할 것인가 하는 문재에는 관심을 둘 수 없었다. 신아구방(新我舊邦)을 목표로 조선을 개혁하는 데에도 죽을힘을 다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목민(牧民)의 지침서는 마음으로 쓸 수밖에 없었고(牧民‘心’書), 경제의 정책제안은 표문(表文)으로 임금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유서처럼 남길 수밖에 없었다. (經世‘遺’表)

그는 동이족의 평화사상을 묘사하면서 자신의 현실적 평화사상을 담았다.

역사에서 동이(東夷)를 인선(仁善)하다고 칭찬함은 진실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조선은 정동쪽 땅에 위치한 까닭으로 그 풍속이 예절을 좋아하고 무력을 천하게 여김은 물론 차라리 유약할지라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군자의 나라임에 틀림없다. 아, 이미 중국에 살 수 없을진댄 살 곳은 동이(東夷)뿐이다.¹⁴⁾

13) 이찬수, 『평화와 평화들 -평화다원주의와 평화인문학』, pp. 32~35 참조.

「동호론(東胡論)」에 따르면, 예절을 좋아하고 무력을 천하게 여기며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민족이 동이족이다. 평화를 폭력 없는 상태로 규정할 경우, 동이족은 무력이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민족이므로 평화주의자들이다. 다만 “유약할지라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역사적 현실 앞에서는 매우 무기력하게 들린다. 과연 저렇게 하여 종족을 보존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이다.

정약용은 「동호론」에서 중국 동쪽 지역의 민족들, 예를 들어 조선을 비롯하여 선비, 여진, 거란 등은 대체로 어질고 성실한 성품을 가진 반면, 북쪽이나 서쪽의 흉노, 돌궐, 몽골, 서강 등은 잔인한 일에 익숙한 패도의 무리라고 규정하였다.

북방 사람은 대체적으로 강하고 사나운 까닭에 흉노·돌궐(突厥)·몽골(蒙古) 등속은 모두 사람 죽이기를 즐기고 잔포(殘暴)한 짓에 익숙하다. 서강(西羌) 또한 간사하고 변덕이 많다. 유독 동방에 있는 오랑캐(東狄)만은 모두 인후(仁厚)하고 성실하고 신중하여 칭찬할 만하다.

척발위(拓跋魏)는 선비족(鮮卑族)이다. 이들은 중국에 들어가서 예악(禮樂)을 숭상하고 문학을 장려하여 제작(制作)이 찬란했었다. 거란(契丹)은 동호(東胡)이다. 아보기(阿保機, 요(遼)의 태조(太祖))는 천륜(天倫)에 돈독하여 자갈(刺葛)이 세 번 반역을 일으켰으나 세 번 다 석방했으니, 이는 우(虞)나라 순(舜) 임금 이후로는 없었던 일이다. 그 성대한 정치와 장구한 역년(歷年)은 2백여 년이다. 실로 중국으로 대우받는 나라로서도 드문 일이었다.

여진(女眞)은 두 번이나 중국에 들어가 임금 노릇을 했다. 그들이 금(金)나라로 있을 적에 송(宋)나라의 두 황제 휘종(徽宗)과 흥종(欽宗)을 사로잡았으나 끝내 살해하지 않았다. 장수와 정승이 서로 화합하여 규모가 크고도 원대했으니, 해릉왕(海陵王, 금나라 폐제(廢帝) 완안량(完顏亮)을 가리킴)이 그토록 광망하지만 없었다면 쉽사리 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청(淸)나라는 천

14) 『정본 여유당전서』 2, 권12 文集, 「論·東胡論」, p. 340. “史稱東夷爲仁善, 眞有以哉! 況朝鮮處正東之地, 故其俗好禮而賤武, 寧弱而不暴, 君子之邦也. 嗟乎, 旣不能生乎中國, 其唯東夷哉”.

하를 통일할 때 군사가 칼날에 피를 묻히지 않았고 시장은 점포를 옮기지 않았었다. 그리고 귀영가(貴盈哥, 금 목종(金穆宗) 완안영가(完顏盈歌)를 가리킨 듯함) 이후로 태백(泰伯)·중옹(仲雍)의 기풍을 지닌 사람이 여럿이었으니, 또한 훌륭하지 않은가.¹⁵⁾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교육하는 역사상식과는 배치되는 역사를 접하게 된다. 삼국시대에 선비족은 고구려와 전쟁을 하였고, 남북국시대 거란은 발해를 멸망시켰다. 여진은 고려와는 대치하였고, 훗날 조선을 굴복시켰던 민족이다. 우리에게겐 적국이었는데, 그들을 정약용은 평화의 민족으로 기술하고 있다. 선비족은 중국에 들어가서 예악을 숭상한 나라를 경영하였고, 거란은 천륜이 돈독한 인의의 나라로서 순임금의 나라인 우(虞)나라와 동급의 성인의 나라이다. 또한 여진은 금나라였을 때는 중국의 송나라를 침입하여 두 황제를 사로잡았으나 살려준 여진 나라였고, 청나라를 세웠을 때는 칼날에 피를 묻히지 않을 정도로 평화를 사랑한 민족이었다. 반면에 흉노와 돌궐과 몽골은 같은 무력을 사용하면서도 대단히 포악했고 폭력적이었다. 중국의 서쪽 지역 민족은 폭력적이었고, 동쪽 지역 민족은 어질고 후덕했다.

아마도 정약용의 평화는 이런 것일 것이다. 무력을 사용하더라도 평화적으로 사용하고,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후덕하게 하는 것이다. 갈통이 언급한 국가 간의 투쟁이 없는 적극적 의미에서의 평화는 이상적이고 관

15) 『정본 여유당전서』 2, 권12 文集, 「論·東胡論」, pp. 339~340. “北方之人, 大抵強悍, 故匈奴·突厥·蒙古之屬, 莫不嗜殺戮習殘暴, 而西羌亦詐薄多變, 獨夷狄之在東方者, 皆仁厚愿謹, 有足稱者. 拓跋魏, 鮮卑也. 其入中國也, 崇禮樂獎文學, 制作粲然. 契丹, 東胡也. 阿保機【遼太祖】敦於天倫, 刺葛三叛而三釋之, 此虞舜以來所未有也. 其統治之盛, 歷年之久, 【二百餘年】實中國之所蕞獲也. 女真再主中國, 而其在金也, 虜宋之二帝, 而終不加害, 將相和附, 規模宏遠, 非海陵之狂昏, 未易亡也. 清之得國也, 兵不血刃, 市不易肆, 而貴盈哥以來, 有泰伯·仲雍之風者數人, 不亦韙哉?”

념적일 뿐이며, 현실적인 평화는 무력과 폭력이 행사되는 불가피함 속에서의 평화이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갈라져 대치하고 있고, 주변의 열강은 남북의 분단상황을 고의로 해소하지 않는 엄연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평화의 길이 될 것이다.

VI. 맺음말

지금까지 정약용의 언설들을 통해 오늘의 평화학(Peace Studies)과 동일한 언어나 개념은 아니지만, 평화(Peace)의 사상을 재구성해 보았다.

과거의 역사를 반추하여 18~19세기의 조선이 자존을 지키며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제도를 개혁하고자 했던 정약용의 헌신과 노력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시사한다.

남북의 대치는 대선 정국과 맞물려 극단으로 치달아가고,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는 북한의 김정은이 2017년 4월 29일 미국의 항모 칼빈슨호를 향해 발사했다는 중거리 대함 탄도미사일 KN-17로 추정되는, 비록 공중 폭발했지만,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접하고 4월 30일(현지시각)에 미 CBS 방송의 취임 100일 인터뷰에서 “삼촌이든 누구든 많은 사람이 그의 권력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그는 권력을 잡을 수 있었다”며 김정은을 ‘꽤 영리한 녀석(smart cookie)’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 당장이라도 전쟁이 터질 것 같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를 빌미로 롯데기업을 압박하고, 한국 관광을 금지하면서 남한에 대한 경제제재

(經濟制裁)를 가하고 있다.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위임에도 중국의 일련의 조치들은 그들이 매우 조급하고 절실하다는 느낌을 주기까지 한다.

칸트(I. Kant)가 꿈꾼 지구적 차원의 완전한 영구적 평화, 그리고 갈통(J. Galtung)이 규정한 모든 폭력이 없는 적극적인 평화를, 물론 이것은 순수한 관념의 소산일 뿐이지만, 대한민국이 이 시점에서 꿈꿀 수 있을 것인가? 가깝게는 남북의 평화가 절실하고, 좀 더 범위를 확장한다면 동아시아의 평화를 기약해야 한다. 100여 년 전 일제 침탈의 역사적 국제 환경이 재현되는 듯한 불길한 전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한민족과 대한민국의 자존과 안정, 그리고 평화를 무엇으로 기약할 것인가?

정약용의 평화사상에서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고구려가 험지에서는 지속적인 투쟁과 갈등 속에서 스스로 강인해지면서 나라를 보존할 수 있었고, 풍요로운 남쪽으로 내려와 안락한 평화를 추구하다가 멸망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오늘 남한의 현실은 정약용이 말한 험지(險地) 그 자체가 아니겠는가! 수신(修身)을 하기 위해서만 성성(惺惺)한 자각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도 정신이 늘 깨어있는 성성한 상태를 요구한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거칠고 험한 국제적 환경을 평화의 유지와 수호를 위한 강인한 정신자세로 직시하면서 대응해 나간다면 능히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정약용이 백년 뒤의 미래전쟁에 대비하여 수원 화성을 것처럼 견고하게 설계하였듯이 미래의 평화를 위해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접수: 2017년 5월 1일 / 심사: 2017년 5월 4일 / 게재확정: 2017년 6월 1일

【참고문헌】

- 김문식. “정약용의 대외인식과 국방론.” 『다산학』, 4 (2003).
- 서보혁·정옥식. 『평화학과 평화운동』.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6.
- 서울대학교 평화인문학연구단 편. 『평화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아카넷, 2013.
- 요한 갈통. 강종일 외 옮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서울: 들녘, 2000.
- 이종우. “추대한 자들과 그것을 받은 자간의 권력과 폭력 및 평화: 다산 정약용.” 『동서사상』, 15 (2013).
- 이찬수. 『평화와 평화들 -평화다원주의와 평화인문학』.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6.
- 임마누엘 칸트, 이한구 옮김. 『영구평화론』. 서울: 서광사, 2013년 개정판(초판 1992년).
- 정경현. “19세기의 새로운 國土防衛論 -茶山の 『民堡議』를 중심으로.” 『한국사론』, 4 (1978).
- 조성을. “丁若鏞의 軍事制度 改革論.” 『경기사학』, 2 (1998).
- 최진욱. “정약용의 民堡防衛論의 성격.” 『사학연구』, 87 (2007).
- 『定本 與猶堂全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Jeong Yak-yong's Thought of Peace

Hwang, Byong Kee

(Researcher, the Institute of Humanities in Seoul Nt. Univ.)

Abstract

This paper is a reorganization of Jeong Yak-yong's thought with a single theme called Peace. However, the goal of defining the concept of peace in his narrative is a difficult one and it is not the purpose of this paper. The Joseon(朝鮮) society in the late 18th and early 19th centuries when he lived wa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society in which various countries of the modern Western era, in which peace studies began to be established, were established. From the point of view of Joseon Dynasty, there were few intellectuals who had been influenced by Western thought as much as he was, and there could be no philosopher who aimed to fuse East and West ideology religiously and philosophically. However, the situation around the state of Joseon(Korea) was not so complicated as to discuss the peace among the countries.

The reform measures and arguments that he tried to reform and defend the state of Joseon were basically a way to safeguard Joseon in the gap between the Great Powers and the small countries. His dedication and efforts to propose policies and to reform the system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suggest how South Korea should act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complete permanent peace on a global scale that I. Kant dreamed of, and all violence-free positive peace that J. Galtung defined is only a product of pure ideas. The Republic of Korea must make a real and practical peace at this point. There is an urgent need for inter-Korean peace, and if we expand the scope further, we must pledge peace in East Asia.

We can find a way in Jeong Yak-yong's thought of peace. If Goguryeo(高句麗) was able to preserve the country by being stronger in the constant struggle and conflict in the rough region, and came down to the abundant south and pursued peaceful peace and therefore reached its destruction, today, the reality of South Korea is just the rough and harsh conditions that Jeong Yak-yong mentioned.

We will get peace if we cope with a rough and harsh international environment with a strong mind for maintaining and protecting peace. Just as he designed the Suwon Hwaseong(華城) castle so firmly against the future war after a hundred years, only those who prepare for peace in the future will gain it.

Key words : Jeong Yak-yong, Joseon dynasty, peace, violence, nonviolence, I. Kant, J. Galtung, positive peace, real and practical peace.

황병기(Hwang, Byong Kee)

연세대학교 철학과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연구원, 다산인문학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